

a+u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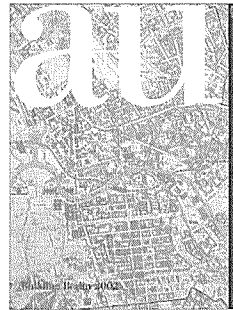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cord

World Architecture

a+u

2002년 9월

이번 호의 특  
집은 Building  
Berlin 2002  
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십 수년간  
건설붐을 맞  
은 베를린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쉥켈  
과 미스 등 근대건축가의 작품에서 최근  
완공된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베를린의  
주목할 만한 건축물들 155개를 선정하  
고, 이들 중 200여개를 선별하여 소개하였  
다. 한편 변화하는 베를린과 새로운 건축  
물들의 의미를 마리 펍친스키의 에세이  
로 함축하여 담아내었다.

■ 특집: Building Berlin

베를린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 지금으로  
부터 십 수년 전, 1989년 베를린의 장벽  
이 무너진 이래 건설을 계속해 온 이 도시  
에는 8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도  
지금에 와서야 세계의 최선단을 걷고 있  
다. 과거에는 프로이센왕국의 王都였던  
베를린은 다시금 수도로 바뀌었다. 그것  
도 국제도시로서의 신생베를린으로서 말  
이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  
는 이 메트로폴리스의 단면을 2002년도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소개된 프로젝  
트들은 칼 프리드리히 쉥켈이나 미스 반  
데를 로어가 그려낸 都市像에서 시작하  
여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되어 완공  
된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에 이르기까지 베를린이 '근대화'를 거치  
면서 밟은 단계들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부르노 타우트 저택의 보수와 같은 수복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표제의 'Building  
Berlin'의 'Building'은 명사(건물)이면  
서 동시에 동사(건설하다)인 것이다. 여

기에는 베를린이 어떠한 원동력과 물리  
적인 특성을 갖고 21세기에 새로이 태어  
나는가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마리 펍친스키(Mary Pepchinski)의  
에세이: 「도시구조로부터 조금 떨어져  
서서 베를린의 새로운 건축들」,  
1989년 이래 베를린의 건설붐에 대해 이  
야기하자면 정치가들은 만들어 놓은  
「Critical Reconstruction(비판적 재건: 근  
대적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포함  
되어 있다)」이라 명한 디자인 규칙을 작성  
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심부에  
신규 착공되는 건물은 8층 규모로 한정되  
고 모든 도시의 여백을 메꾸는 형태로 외  
장은 천연석 쌓기여야 하며, 단일한 그리  
드에 맞추어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관의 통일이라는  
문제를 제쳐두면 세계대전 후 한꺼번에 지  
어진 건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프리패브 건축이건, 포스트모던 건축이  
건, 인필(infill)형의 상업건축이던 간에  
모두가 이 비판적 재건 의 교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베를린의 건축은 수 십년간  
도시공간의 윤곽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것  
과 다를 바 없다. 나아가 도시형 건축은  
공과 사의 영역을 나누고, 가로나 광장의  
영역과 실내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었  
다. 단지 한스 샤로운이나 미스 반데를  
로어의 풍부한 표정을 갖는 기념비적 건  
축들만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훌륭한 작품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  
로지 규범대로 지어진 도시형 건축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건물들이 최  
근 십 수년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  
근의 이러한 건축들은 분명히 각각의 고  
유한 컨텍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  
지만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점은 모두가  
도전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도시형 건축의 방  
식, 공과 사를 분리하고 건물내부에서 펼  
쳐지는 스토리를 외부로부터 감추는 방  
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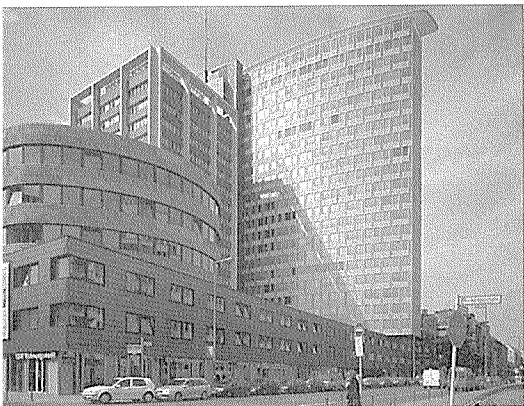
■ 북유럽제국 대사관 (마스터플랜과 공  
유시설 설계: Berger+Parkkinen, 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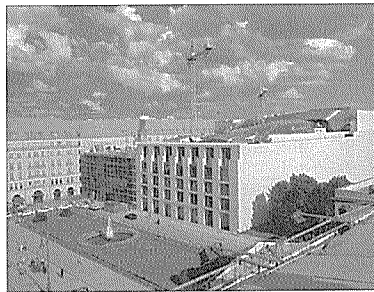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 (Frank O. Gehry, 1995-2001)

사관별 개별 건축가 설계, 1995-1999)  
기존의 외교 단지의 경계부에 북유럽諸國대사관이 모여있다. 이 일군의 건물은 건물군 밖의 오피스街와 베를린 중앙공원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긴 장방형의 동판을 옆으로 늘어 놓아 형성한 높이 15m의 울타리는 아름다운 외피를 만들면서 이 복합시설을 둘러싸고 있다. 동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울타리는 장벽보다는 투명한 막에 가깝다. 이에 의해 시설 내부와 외부와의 시각적 교감이 가능하다.

■ GSW본사 (sauerbruch hutton architects, 1995-1999)  
도시를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으로부터 1블럭 떨어진 크로츠베르그(Kreuzberg) 지구에는 20층 높이의 GSW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의 서측 파사드에는 유리 커튼월 너머로 붉은 색조의 차양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차양판은 실내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그 움직임은 시



GSW본사 (sauerbruch hutton architects, 1995-1999)



DZ은행 (Frank O. Gehry, 1995-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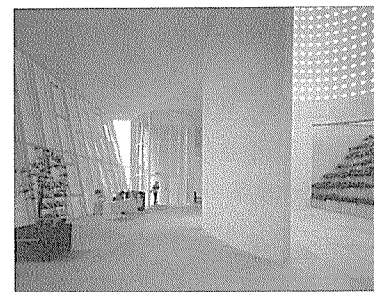
적이고 회화적인 인상을 준다. GSW본사는 전광게시판처럼 개개 업무공간의 상황을 도시전체에 비추고 있다.

■ DZ은행 (Frank O. Gehry, 1995-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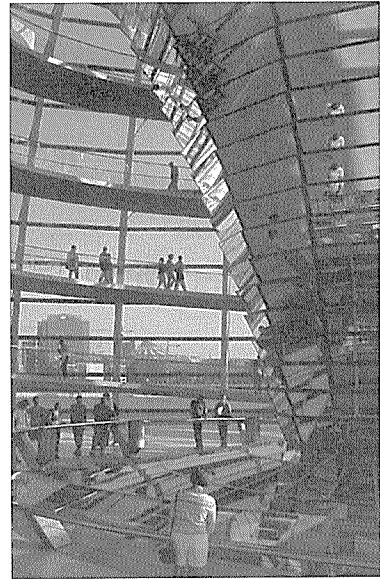
GSW본사에서 몇 블럭 북상하면 Mitte(Mitte)지구의 파리광장에 면한 공지에 세워진 DZ은행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크 양식의 파리 광장은 근년에 비판적 재건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건되었다. 은행의 외벽은 그리드가 들어간 라임스톤 마감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크게 뚫린 개구부덕에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오피스 내부의 광경이 눈에 들어 온다.

■ 멕시코 대사관,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 베를린 중앙역

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통행인을 끌어들이는 건물도 있다. 북유럽제국대사관에 인접하는 멕시코대사관(Teodoro Gonzalez de Leon & J. Francisco Serrano)의 파사드는 세장한 지주들이 늘어선 1장의 스크린으로 되어있어 극장의 커튼보다는 균형잡힌 개방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투명한 공간을 감싸기 위해 다수의 유리면을 사용한 예도 있다.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Foster and Partners)에서는 유리 돔 속에서 2줄의



멕시코 대사관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

경사로가 감싸돌고 있다. 이 경사로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보여진다. 혹은 막 완성된 베를린 중앙역인 Lehrter Bahnhof(von Gerkan, Marg and Partner)에서는 발착하는 열차나 승강객이 유리로된 볼트에 역동감을 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두에 가이드라인 「Critical Reconstruction」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언급한 거물들은 베를린 당국의 고삐를 변화시키면서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시대의 흐름으로서 실현되었다. 대사관등의 건축주는 법적으로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므로 현지의 건축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1989년경에 베를린 이외 지역에 근거를 둔 건축가들이 베를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 이웃사이드들은 베를린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본 것은 고찰과 실험의 여지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엄격한 디자인 규제를 거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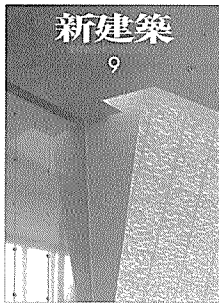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이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불변의 위계의 붕괴, 즉 기존의 사회를 만들어왔던 그리고 베를린을 형성해 온 위계의 붕괴와 함께 공과 사,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이러한 건축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전세계의 절대적인 계층제도도

냉전시대가 가져온 정치 경제의 분열도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동서통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베를린에는 어딘가 불안정하고 모순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건물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순하고 정당한 전략으로는 이러한 베를린의 일상을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신건축

2002년 9월

이번 호에서는 따로 꾸며진 특집 없이 크고 작은 최신 작품들의 소개 위주로 꾸며졌다. 소개된 작품은 코야마



하시오(香山壽夫)건축연구소의 카니(可兒)市 문화창조센터, 이토오 토요와 ARUP의 써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언, 안도 타다오의 효고현립(兵庫県立)미술관 등이다.

### ■ 작품 소개

▶ 써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 2002 (이토오 토요伊東豊雄+ARUP)

런던의 켈링턴 거든내에 있는 써펜타인(serpentine) 갤러리의 前庭에 하절기의 3개월간만 설치되는 파빌리언이다. 카페나 이벤트용으로 사용될 300평방미터의 공간을 만들되, 그리드시스템에 의하지 않은 무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테마가 되었다.

구조는 스틸 플랫 바(steel flat bar)에 의한 격자구조이다. 550mm의 양성리라는 구조요건에서 최소의 두께로 고안된 플랫 바를 공장용접하여 운송가능한 크



써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 2002 (이토오 토요伊東豊雄+ARUP)

기로 패널화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였다. 랜덤해 보이는 架構는 하나의 정방형을 회전·확대시킴으로서 생성되는 알고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부재는 보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진동의 제어역할까지 수행하여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의존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내고 있다.

표면은 알루미늄 패널과 유리를 사용하여 마감되었다. 구조체의 라인에 의해 분절되는 다각형의 면이 곳에 따라 결합하여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구조를 표현한 것도, 감춘 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또한 창이나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에 환원되는 일없이 단지 장식적으로 보이는 모양만이 떠오르고 있다.

‘사람을 보호하는 場所를 덮는다’라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이 요건에 대하여 균질화를 향하기는 합리성에 의해 보이지 않게 되었던 시스템을 드러내는(顯在化)일. 이것은 무한히 확장하기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복잡하면서도 단연코 순수한 시스템을 갖는 백색 상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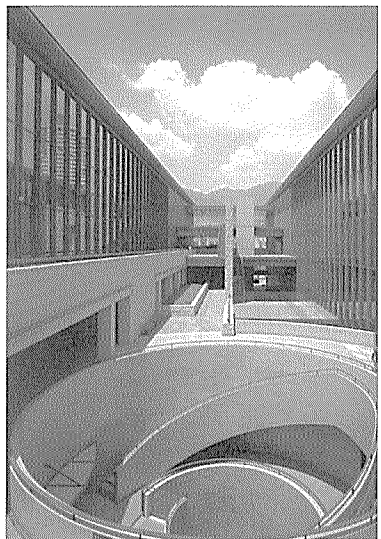
▶ 효고현립(兵庫県立)미술관 (안도타다오, 효고현 현토정비부)

일본 고베(神戸)의 震災復興의 심볼이 되는 동부 신도심지구에서 미술관이 되었다. 1997년 국제공모전에서 안도 타다

오의 안이 선정되었으며, 부지는 안도가 이전부터 설계를 진행시켜오던 「고베시 水際광장」부지와의 가까운 곳이다. 안도는 발주자와 공사시기도 다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일체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전체는 석벽의 기단부분과 평행으로 늘어선 3동의 유리상자로 구성되어 매우 단순한 형태를 지니며, 유리상자 각각은 이중 피막구조로 되어있어 그 내부에는 전시실을 포함한 콘크리트 상자가 들어가 있다. 콘크리트와 유리의 사이공간에서 생기는 여백의 스페이스는 회랑이 되어 내부에 외부를 끌어들이고 외부로 내부의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 명쾌한 구성이면서도 내외공간의 경계를 엮어냄으로서 역으로 복잡 다양한 공간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회랑과 콘크리트 벽에 의하여 감싸진 전시공간은 자연광을 유입시킬 수 있는 4층의 오픈된 前室을 통해 접근된다. 그 이전의 전시실은恣意的인 요소를 일절 배제하고 인공조명을 중심으로 한 중성적인 공간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 상호간의 볼륨과 빛의 확보에 있어서의 관계이다. 계획 스테디의 대부분은 공간 각각의 폭, 깊이, 천장의 높이라는 비례와 각 공간의 연결에 의해 전개되는 빛의 추이에 대한 검토에 할애되었다. (번역/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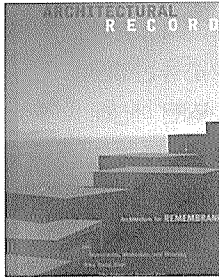
효고현립(兵庫県立)미술관 (안도타다오, 효고현 현토정비부)

##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7월

묘지, 기념 공원 등 추모와 기억을 위한 건축의 의미와 사례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본 호는 아울러 작은

규모의 특화된 병원들에 대한 예들도 소개하고 있다.



### ■ 추모를 위한 건축

이 특집기사는 꾸준히 논의되는 쟁점에 관한 역사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공공기념물들에 관한 에세이로 시작한다. 묘지, 영안실, 장례식장, 기념 공원 등 몇 가지 완성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면서, 미국 오클라호마 시와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일어난 끔찍한 재난에 대한 두 개의 기사로 마감한다.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작품에서 건축가들은 죽음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승화시켜 보여주하고자 한다.

▶ Michael Singer, Luz and Partners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Memorial Garden

슈투트가르트 국제 원예박람회의 일부로 조성된 이 공원은 조각가인 Michael Singer가 이 땅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업한 “기억의 지도”를 모티브로 계획되었다. 사이트를 선택하고 나서 Singer는 바로 옆의 언덕이 50년 전 2차 세계 대전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로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기억이라는 공원의 주제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공원은 흐르는 물소리로 가득하지만 방문객이 볼 수 있는 것은 화

강석, 콘크리트, 청동으로 만들어진 연못에 고요히 담겨있는 물이며, 흐르는 물은 돌, 금속, 나무로 만들어진 조형물 안에 숨겨져 있다. Singer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각과 청각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소리와 풍경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이루어낸다.

▶ Baas Architects의 스페인 Leon 시립 장제장

스페인 남서쪽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시설은 주민들의 시각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장되었으며 지붕에는 물을 채워 연못을 형성하였다. 이 건물은 시립 시신 안치소와 영안실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건축가는 이 건물을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 즉 “매장과 배출, 땅과 하늘, 무거움과 가벼움, 개방감과 친밀함” 등으로 풀어갔다. 예를 들면 땅에 묻힌 거대한 무덤으로 이 시설을 인식했지만 지붕은 하늘을 반사하는 못을 담고 있다.

기타 예로 ▶ Ales Vodopivec의 슬로베니아 Srebrnice 묘지, ▶ Mecanoo Architects의 Rotterdam Chapel of St. Mary of the Angels, ▶ Cesar Portela Architect의 스페인 La Courma Fisterra 묘지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아동 및 여성 전용 의료 시설 사례 연구

미국병원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전에 비해 병원수는 1,000개소나 감소하였다. 대형병원에 의해 중규모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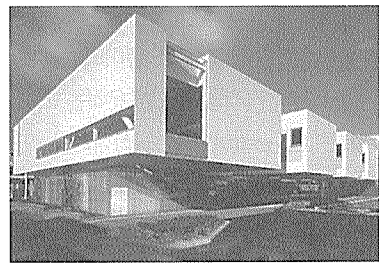
Baas Architects의 스페인 Leon 시립 장제장

원들이 합병되거나 폐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건설비용은 증가하였으며, 보다 전문화된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Georgia Medical College의 아동전문병원도 기존 캠퍼스 내 종합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아동전문병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 별도로 신축되었다. 이 병원이 화려한 색채와 축각적인 형태로 어린 환자들의 시선을 끈 반면, Mott Children's Center는 보다 절제된 형태로 젊은 환자들에게 어필하며 의료 서비스면에서는 보다 전문적이다.

사례로 ▶ Stanley Beaman & Sears의 Georgia Augusta 어린이 병원, ▶ Atelier Hitoshi Abe의 일본 미야기현 Sekii 여성 전문병원, ▶ MMBB Arquitectos의 브라질 Orlandia 치과 병원, ▶ Zimmer Gunsul Frasca Partnership의 워싱턴 Mott 어린이 병원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기타

▶ Richard Meier의 미국 Atlanta High Museum에 대한 Renzo Piano의 증축 계획안 소식, ▶ Sejima와 Nishizawa의 첫 미국 프로젝트, ▶ Moshe Safdie의 미국 Metropolitan Kansas City Performing Arts Center 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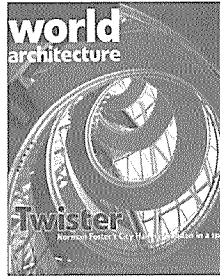


Atelier Hitoshi Abe의 일본 미야기현 Sekii 여성 전문병원

## World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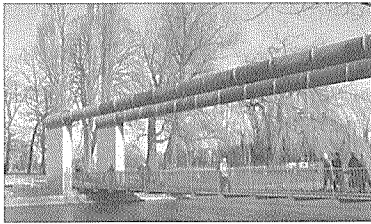
2002년 7/8월

7명의 건축가  
에 의한 선별된  
2002 World  
Architecture  
Awards의 후  
보 리스트를  
대대적으로 다  
루고 있는 본 호의 건축을 연구 섹션에서  
는 Toyo Ito, Norman Foster의 근작들이  
다루어져 있다.



### ■ 근작소개

▶Toyo Ito와 Jurg Conzett의 Bruges의 보행자용 다리



Toyo Ito와 Jurg Conzett의 Bruges의 보행자용 다리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선정된 Bruges시는 그 기념으로 일본의 스타건축가 Toyo Ito와 Jurg Conzett에게 각각 건축적 조형물의 설치를 의뢰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인 광장의 한 가운데 세워진 Ito의 다리는 다소 유머러스한 반면, 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운하를 가로 지르는 Conzett의 것은 남성적이다. 도심의 광장에 세워진 별집모양의 알루미늄 망으로 만들어진 구조체는 다리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동시에 하중을 별도의 기둥 없이 별집모양의 망으로 흡수한다. Sendai Mediatheque에서 보여줬듯이 Ito는 빛을 내부로 충분히 끌어들이기 위한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구조와 외피의 경계를 흐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Conzett의 다리는 2개의

원형 빔에서 연결된 18개의 케이블이 다리를 매달고 있는 구조로서, 원형 빔은 기름 드럼통이나 파이프라인을 연상시킨다.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시청  
런던 시청은 영국에서 지어진 건물 중 가장 미래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이 위치한 템즈 남쪽 강변은 19세기에는 번화한 강둑이었으나 20세기초는 개발이 유보된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최근 Tate Modern, the London Eye, 그리고 Millenium Bridge 등 유명건축가의 작품들이 지어지면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달걀 모양의 형태는 민주주의의 친 환경적 표현으로서 건물의 형태와 형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모두 결정되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되어 일반 오피스 건물의 1/4수준으로 건물 운영이 가능하다. 유리의 사용은 접근 용이하고 민주적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들이 선출한 시장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접근 용이성은 내부 인테리어 구성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실내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나선형 램프는 1층의 의회에서부터 8층의 전망대까지 연결한다.

650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유리로 덮인 타원형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컴퓨터의 도움이 컸다. 컴퓨터에 의한 디자인이 시공기술을 앞서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가장 적절한 커브를 찾아내고 곡선을 직선으로 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런던 시청은 미래를 내다보는 건물이다. 환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런던시가 지향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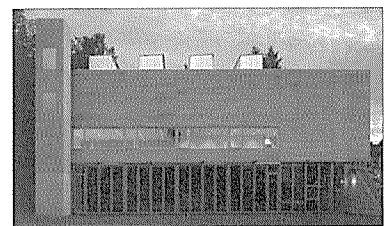
▶Cukrowicz Nachbaur의 오스트리아 소방서 겸 문화센터  
오스트리아 서부에 위치한 Vorarlberg는 건축문화를 활발하게 후원하는 지역으로 각각의 마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유명한 현대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건축은 Kenneth

Frampton이 언급했던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의 완벽한 표본으로, 문화적, 정치적으로 발전된 곳으로서 높은 수준의 건축기술, 특히 목조기술과 산림자원을 갖고 있다. Frampton에 의하면 이러한 건축은 토속적이지 않으면서도 한정된 지역에 내재한 가치 및 기술을 반영한다.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소방서와 문화센터 등 두 프로그램은 한 건물에 수용되었다.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Cukrowicz는 이질적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단면적으로 분리하였다. 두 기능의 분리는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적용되는데, 소방서는 쪽널 거푸집을 이용하여 거친 텍스처의 콘크리트 마감을 하고 문화회관은 목재마감을 하여 대비를 이룬다. 소방서가 위치한 1층의 전체적 구성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곳에 주차하는 4대의 소방차 자체가 시각적 중심이 된다. 문화센터의 한 면은 모두 열려있어 이면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에 의해 변화하는 실내 목재마감의 빛깔은 해시계와 같은 기능을 한다. 시간에 따라 그 시각, 청각, 심지어 후각까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다.

### ■ 기타

▶83세 된 Jorn Utzon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보수 계획, ▶프로레스러 출신의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Jesse Ventura의 예술 부문 지원 삭감으로 인한 Jean Nouvel, Cesar Pelli, Michael Graves 등의 건축물 신축 지연 소식, ▶Smithsons 부부의 저서에 대한 리뷰 등이 실려있다. (번역/최원준)



Cukrowicz Nachbaur의 오스트리아 소방서 겸 문화센터